

규방가사에 나타난 여성노동 담론의 내면화 양상*

전지원**

| 목차 |

- | | |
|-----------------------------|------------------------------------|
| 1. 머리말 | 형상화 |
| 2. 유교적 여성노동 담론과
규방가사의 위치 | 1) 여성노동의 구체적 묘사
2) 고통 토로와 놀이 권유 |
| 3. 규방가사에 나타난 여성노동의 | 4. 맺음말 |

| 초록 |

본 연구는 조선 후기 규방가사에 나타난 여성노동의 형상화를 분석하고, 이를 여성 생애자료와 교차 검토함으로써 여성노동 담론의 내면화 양상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조선 후기 여성의 노동은 유교적 가부장제의 윤리 담론과 결합하여 강력한 당위성을 획득하였으나, 그 수용 과정은 단순한 규범의 주입이 아니라 현실적 체험과 감정 그리고 실천적 조율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밝히기 위하여 『한국가사문학주해연구』에 수록된 규방가사 전편을 대상으로 하여 계녀가류·자탄가류·화전가류를 각각 45편 내외씩 분석하고, 사족 남성이 여성의 생애를 이상화한 哀祭文·碑誌文·傳狀類와 비교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규방가사는 여성노동의 구체적 행위와 절차를 세밀하게 묘사함으로써 노동을 추상적 윤리가 아닌 일상적 실천으로 재현하고, 이를 통해 윤리가 생활 속에서 체화되는 내면화의 과정을 드러냈다. 동시에 노동의 고단함과 피로, 놀이와 자유에 대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B5A17048326)

** 부산대학교 점필재연구소 jw1015@pusan.ac.kr

한 욕망이 함께 표출되어 내면화가 단순한 규범 수용이 아니라 갈등과 조율을 내포한 복합적 과정이었음이 확인되었다. 반면 여성생애자료는 노동을 여성의 희생과 미덕으로 이상화하며 여성노동을 도덕적 의무로 정당화하였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본 연구는 규방가사를 유교적 질서와 여성의 현실적 삶이 교섭하며 새로운 생활 윤리를 형성한 실천적 담론의 장으로 조명하였다. 여성노동 담론의 윤리적 당위, 신체적 고통, 그리고 욕망의 긴장이 교차하는 내면화의 양상을 해명함으로써 규방가사 연구와 여성노동사 연구의 통합적 이해를 위한 분석의 단초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규방가사, 여성노동, 내면화, 여성생애자료, 유교적 질서, 생활 윤리

1. 머리말

본고는 전근대 사회의 여성노동 담론이 형성·확산되는 과정의 일면을 규명하기 위하여 규방가사를 중심으로 유교적 가부장제의 여성노동 담론이 여성의 일상에 침투한 양상과 그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조선 후기 여성의 삶은 유교적 질서 속에서 규범화되었으며, 노동은 그 핵심을 이루는 일상이었다. 여성은 다양한 생산노동을 통해 가부장제와 사족 계층, 나아가 조선 사회의 유지와 재생산을 떠받치는 주체였으나, 그들의 노동은 언제나 윤리적 의무이자 당연한 책임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여성노동 담론은 외부의 규범적 강요에 그치지 않고, 여성 스스로의 내면에까지 깊숙이 침투하여 자율적 수용과 실천의 윤리로 작동하였다.

그동안 규방가사 연구는 주로 여성 주체의 윤리 실천과 유교적 질서의 내면화 과정을 문학적·정서적 차원에서 조명해 왔다(성무경, 2003; 최규수, 2008; 이민규, 2017; 정기선, 2022). 이들은 계년가류 가사를 중심으로 규범의 전파와 여성의 수용 과정을 밝혔지만, 노동의 구체성과 그 실천 과정에서 나타나는 내적 갈등의 역동성에는 충분히 주목하지 못하였다. 한

편, 여성노동을 사회경제적 구조나 일상적 실천의 문제로 접근한 연구들(김석희, 2005; 박경주, 2012; 하운섭, 2013; 손영화, 2015; 이상원, 2018)은 여성노동의 현실적 의미를 심화하였으나, 개별 작품 중심의 분석을 위주로 함으로써 규방가사 전반의 서사 구조와 정서적 내면화를 종합적으로 조망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여성노동의 윤리적 당위와 현실적 고통, 규범과 감정의 긴장 관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내면화되었는지를 동시적으로 포착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구체화하기 위해 본 연구는 규방가사와 더불어 사족 남성이 여성의 사후에 작성한 哀祭文·碑誌文·傳狀類(이하 ‘여성생애자료’)를 교차 검토한다. 여성생애자료는 사족 남성이 서술 주체로서 여성상을 이상화한 기록으로, 남성 중심 사회가 기획한 여성노동 담론의 전형을 보여준다. 반면 규방가사는 남성과 여성 작자가 공존하되 여성의 일상과 생활 경험이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동일한 담론을 현실적 실천의 언어로 재해석하는 경향을 보인다. 본 연구는 이러한 두 장르의 비교를 통해 ‘남성에 의해 기획된 여성노동 담론’과 ‘여성에 의해 내면화되고 재구성된 노동 담론’이 어떤 접점과 괴리를 형성하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내면화’는 이 두 자료군의 성격에 따라 다층적으로 이해된다. 여성생애자료에 나타나는 내면화는 남성 지식인이 기획한 여성노동 담론이 여성의 삶의 규범으로 전이되어, 그 가치와 윤리가 그대로 흡수된 결과를 뜻한다. 반면 규방가사에서 드러나는 내면화는 이러한 담론을 단순히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위와 현실의 간극 속에서 이루어진 실천적 조율과 재구성의 과정으로 이해된다. 여성 화자들은 노동을 윤리적 의무로 자각하면서도 그 수행의 고통과 감정적 갈등을 언어화하고, 스스로의 삶을 정당화하는 과정을 통해 규범을 능동적으로 변용하였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가사문학주해연구』(전 21권, 아세아문화사, 2005)에 수록된 전 작품을 1차 자료로 삼아, 여성노동을 중

심으로 한 誠女歌類·自歎歌類·花煎歌類를 각각 45편 내외씩 분석하였다. 규방가사는 내용적 측면에서 연구자에 따라 분류 방식이 다소 상이하나, 대체로 계녀가류·자탄가류·화전가류로 구분된다. 특히 계녀가류는 여성을 윤리적으로 의식화하기 위한 교훈적 텍스트로서 “事舅姑→事君子→睦親戚→奉祭祀→接賓客→胎教→育兒→御奴婢→治產→出入→恒心”의 구조를 가지며, ‘태교’와 ‘항삼’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여성노동을 전제한다. 자탄가류와 화전가류 또한 노동이 지배하는 여성의 일상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규방가사를 ‘여성노동’이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선정된 작품들은 창작 시기와 작자층이 상이하나, 그 이질성 속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서사적 구조와 정서적 관습은 전근대 여성노동 담론의 보편적 형성과 확산을 드러내는 단서를 제공한다.

따라서 본고는 규방가사를 단순한 윤리 전파의 매체로 한정하지 않고, 유교적 질서와 여성의 현실적 삶이 교섭하며 새로운 실천 윤리를 구성해 나간 능동적 장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2. 유교적 여성노동 담론과 규방가사의 위치

조선 후기는 사족 여성의 일상이 ‘노동’을 중심으로 일원화되는 과정이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기점으로 사족 여성의 일상은 근본적인 전환을 겪는다. 그 이전에는 사족 여성들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노비를 감독하는 治産 활동을 수행하면서도, 여전히 다양한 여가와 문화생활을 영위하였던 반면, 그 이후에는 노동이 여성에게 부여된 기본적인 윤리적인 책무로 재구성된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경제적 배경의 반영뿐만 아니라, 유교적 이념에 기반하여 이상적인 여성상을 새롭게 구성하려는 이데올로기적 구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특히 『소학』을 비롯한 몇 종의 여성교육서가 여성노동의 당위성을 강

력하게 주장하기 시작한다. 재생산노동으로써의 가사노동이 윤리의 외피를 덮어쓰면서 여성노동에 당위성이 부여되고 상층 여성의 노동 참여를 유도하며 경제 환경에 따라 노동의 충위를 유연하게 넘나들 수 있어야 한다는 관념을 만들었다. 그것은 여성생애자료를 통해 반복된다. 여성노동을 유형화하여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거기에 윤리적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당위성을 부여하는 방식이 활용되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길 수많은 여성 개인의 삶이 기록되어지고 여성들에게 향유됨으로써 여성노동 담론이 내면화·확산될 수 있었다.(전지원, 2022: 17-116)

규방가사 또한 이러한 유교적 여성노동 담론이 반영된 문학 장르로, 당대 여성들이 가정에서 향유하고 재생산한 중요한 문화적 공간이었다. 여기에서는 규방가사에서 여성노동 담론이 구체적으로 작동된 양상을 살피기에 앞서 규방가사의 장르가 가지는 의미·기능을 살피고자 한다.

- 『열녀전』과 「내칙편」, 「가언편」과 「선행편」의 들은대로 본대로 대강만 기록하네¹⁾
- 『열녀전』을 훑어보고 「효행록」을 배우고서²⁾
- 「내칙편」, 『열녀전』을 낭랑하게 외워내니³⁾
- 옥엽처럼 길러낼제 「효경편」과 「내칙편」을 글자 하나하나 가르치니⁴⁾

규방가사에서는 『열녀전』, 『예기』 「내칙」, 『소학』 「가언」·「선행」, 『효경』 등 유가 경전을 학습하고 낭송하며 기록한 흔적이 다수 확인된다. 이러한 독서 행위는 유교적 여성 윤리를 단순히 수용하는 것을 넘어 자율적

1) 「규문전회록」, 『한국가사문학주해연구』 권2, 아세아문화사, 2005, 552면. “열녀전과 내칙편, 가언편과 선행편의 들은대로 본대로 대강만 기록하네”(이 글에서 인용문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자가 번역하였다. 또한 인용문의 출처가 모두 같으므로, 이후에는 「작품제목」, 위의 책, 권수, 쪽수, “원문”의 방식으로 통일하여 표기한다.)

2) 「규범가」, 위의 책 2, 566쪽. “열녀전을 훑어보고 효행록을 배우고서”

3) 「해조사」, 위의 책 19, 510쪽. “내칙편, 열녀전을 낭랑이 외워내니”

4) 「춘흥화전가」, 위의 책 17, 438쪽. “옥엽같이 길러낼제 효경편과 내칙편을 자자이 가르치매”

으로 내면화하고 재창조하는 과정으로 나타나며, 규방가사의 향유층이 유교적 가치관에 입각한 여성상을 스스로 구성하고 확산시켜 나갔음을 시사한다.

- (1)-① 어화세상 사람들아, 이글 저글 살펴보고
선악을 자세히 보아 개과천선하여라⁵⁾
- (1)-② 아이야, 들어보거라⁶⁾
- (2) • 이 세상에 태어난 남녀들이여 이 가사를 읽어보거라
 특별히 여자에게 두어말 이르고자 하노라⁷⁾
- 악착하게 사는 여자들아, 이 글 보아 알 것이라⁸⁾
 - 이 가사 익숙하게 보거라 後生의 여자들이⁹⁾
 - 우리집안 분녀들아 이 내말씀 들어보소¹⁰⁾
 - 며느리야 며느리야 이 내말씀 들어보소¹¹⁾
 - 규중심처 봉우님들이여 이 내말씀 들어보소¹²⁾

작품 속 화자는 (1)-①, ②에서처럼 독자를 아주 넓게 상정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2)에서처럼 ‘여성 전체’, ‘작자보다 어린 여성’, ‘가문의 여성’, ‘며느리’, ‘여성 지인’ 등을 독자로 상정하며, 규방가사의 독자층이 명확히 여성 중심임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규방가사에는 낭송과 필사, 교정과 재창작에 대한 언급도 확인되는데, 이를 통해 여성들이 이 장르의 형성에 적극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부화부순장」, 위의 책 8, 394쪽. “어화세상 사람덜아 이글저글 살펴녀어/선악을 주세보와 기과천선 하여서라”

6) 「계녀가」, 위의 책 1, 235쪽. “아해야 드러바라”

7) 「경계사라」, 위의 책 1, 253쪽. “이세상에 나온남녀 이가사를 읽어보라/특별히 여자으게 두어말 이르고저 하노라”

8) 「직녀가」, 위의 책 16, 185쪽. “악착할사 여자들아 이글보아 알것이라”

9) 「창회가」, 위의 책 17, 365쪽. “이가스 익게보아 후칭의 녀즈드라”

10) 「팔부가」, 위의 책 18, 373쪽. “우리집안 분여들아 이니말씀 드러보소”

11) 「촌즈부가」, 위의 책 17, 225쪽. “며느리야 며느리야 이니말씀 들어보소”

12) 「춘흥화전가」, 위의 책 17, 437쪽. “규중심처 봉우님네 이 내 말삼 들어 보소”

- (1) 때때로 명절에 늘 적에 동무 모아 책보기
뒤쪽으로 가지 말고 소리 좋게 읽어보소
 동산의 모임에서 길게 말아 긴 담뱃대 잡수는 것은
 노부녀가 할 일이요 종종걸음 굶 보기는
 흠애비의 형색이라 (중략)
 두어 명의 동자들이 나의 말 좋게 들어
거듭 열독 하거라 착한 일은 본을 받고
못한 일은 회개하여 명심해야 할 일을 조심하라¹³⁾
- (2) 헤어진 뒤에 다시 언제 얼굴을 보게 될까 규방의 바른 가르침 서로 읽어
주고 받으며 읊으니 師友의 麗澤이 바로 이것이로구나
 그나마 다시 함께 모여 논의하니 이를 기록으로 남겨 전해지기를 바라노라
 지금 헤어지면 언제 만나겠는가.¹⁴⁾
- (3) 장황하고 번잡하여 이것으로 그치니
이 가사를 보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의 작품이라 싫어하지 마시고
妄談이나 失言이 있으면 부디 고쳐주십시오¹⁵⁾

(1)에서는 함께 모여 규방가사를 낭송하며 향유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반복적인 독서를 통해 그 내용을 깊이 내면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2), (3)에서는 규방가사가 집단 창작물로서 형성되었음을 시사한다. 자신들의 가사를 서로 주고받고 논의하며 완성도를 높여갔고 자신의 초고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다음 필사자가 이를 수정하고 보완해 주기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던 것이다.

13) 「규중행실가」, 위의 책 2, 582쪽. “시시명절 놀을 적에 동무 모아 책보기/남의 뒷전 가지 말고 소리 좋게 읽어보소/동산 회중 길게 말고 긴담뱃대 잡숫기는/노부녀의 할 일이요 동동걸음 굶 보기는/호부래비 형색이라 (중략)/두어자 동자들이 내 말삼 조히 들어/재삼속독하였어라 착한일을 뿐을 보고/못한일을 회개하여 명념일을 조심하라”

14) 「규방정훈」, 위의 책 2, 563쪽. “별후면목 어디런고 규방정훈 서로불어/쥬고바다 풍영흐니 스우이턱 이계로다/그나마 다시상양 전기로 바라노라/지금 헤어지면 언제 만나겠는가”

15) 「계여가」, 위의 책 1, 529쪽. “장황하고 다사하야 이만하고 굶치노니/이가사 보시나니 남이문적 혐의말고/망답실언 잇기되면 교정하여 쥬옵소서”

조선 후기 사족 여성의 삶이 노동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규방가사는 유교적 여성관을 내면화하고 확산시키는 중요한 문학적 기제로 기능했다. 규방가사의 향유층은 유교 경전을 학습하며 유교적 가부장제가 생산한 여성(노동) 담론을 내면화하고 실천했다. 동시에 규방가사라는 장르를 통해 ‘여성’을 명확한 독자층으로 설정하고, 낭송과 필사, 논의를 거쳐 작품을 공동으로 생산하며 집단 지성을 형성했다.

이처럼 규방가사는 유교적 가부장제가 생산한 여성(노동) 담론을 단순히 전달하는 수동적 매개체가 아니라, 이를 내면화하고 실천하는 능동적 윤리 실천의 장이었다. 따라서 조선 후기 여성노동 담론은 사족 남성들이 형성한 규범적 서사와 이를 실천적으로 수용한 여성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확산된 복합적인 문화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담론이 규방가사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상화되는지 분석할 것이다.

3. 규방가사에 나타난 여성노동의 형상화

1) 여성노동의 구체적 묘사

조선 후기 사족 여성의 생애주기는 일반적으로 혼인 전과 후로 구분될 수 있다. 혼인 전의 시기는 향후 아내이자 며느리로서의 삶을 준비하는 단계로, 여성은 이 시기 동안 婦道와 女工, 즉 순종적 태도, 욕망과 쾌락의 절제, 검약한 소비 습관, 그리고 다양한 여성노동을 학습하게 된다. 이러한 노동은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보조자로서 수행되지만, 어머니가 병석에 있거나 부재할 경우 딸은 그 공백을 온전히 메워야만 했다.

혼인 이후에는 시가의 생계(경우에 따라 친정의 생계도 포함), 자녀 교육, 가족의 건강 등은 물론 혼·상·장·제례 등의 의례 수행과 손님 접대 역시 여성의 주요 역할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역할은 가산을 유지하고 증

식하기 위한 생산과 재정 관리의 책임, 그리고 여성노동을 보조하는 노비의 노동을 통제하고 감독하는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이처럼 여성노동은 사족 여성의 전 생애를 관통하며 지속되는 일상적 실천이었다.(전지원, 2022: 43-98)

규방가사에서는 여성노동의 실제 수행 방식과 과정이 세밀하게 묘사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혼인 전 여성노동의 교육과 실습 단계, 그리고 奉祭事·接賓客의 실무, 가산의 생산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 노동이 두드러지게 형상화된다. 이러한 구체적 재현은 여성의 일상에서 윤리적 질서가 어떻게 내면화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문학적 장치로 기능한다. 예를 들어, 손녀를 대상으로 작성된 가사에서는 하루 일과의 전개를 매우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동방이 밝아오거든 눈을 씻고 일어나거라

옷을 입고 자리를 정리하고 방을 쓸고 깨끗하게 하거라

옷깃을 단정하게 여미고 치마끈을 바싹 졸라매라

각 방에 문안을 드릴 때는 소리를 나지막이 하거라

어른의 가르침대로 진심을 다해 몸에 익히거라

(중략)

아침 밥상이 들어오거든 손을 잡고 일어나라

어른께서 식사를 시작하시기 전에는 먼저 먹지 못하는 법이니라

음식이 적다고 투정 부리지 말고 맛있는 반찬을 생각하지 마라

아이가 음식을 탐내는 모습은 남에게 부끄러운 일이고

여자의 식탐이 심한 것은 어느 곳에서도 쓸데가 없느니라

식사를 마치신 후에는 마루를 닦는 일은 네가 하려무나

밖에 나갈 생각은 하지 말고 대문 안에서 종일 일해라

자애로운 부모님을 모시고 앉아 있으면 심부름이 어찌 적겠느냐

바늘도 꿰어드리고, 실타래도 찾아드려라

어머니 방에서 아이를 보고 곡식 창고에서는 닭을 쫓아라

자질한 심부름을 하는 틈에도 여자들이 해야 할 일인 바느질을 어찌 배우지 않겠느냐

숨을 고르고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는 것이 길쌈의 시작이고

주머니를 짓고 버선 깬는 것이 바느질의 시작이니라⁶⁾

기상 시간, 신체 및 방 정돈, 아침 식사 시의 예절, 식사 후 마루 청소, 어머니의 의생활노동 보조, 가축 관리, 그리고 양잠·침선 등 여성노동의 전수 과정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실례들은 다양한 작품에서 반복되며, 작품마다 연령이 상이하기는 하지만¹⁶⁾ 여성들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가내 활동으로 생활 반경을 제한하고 반찬 만들기, 제기 관리, 제사 준비, 술 빚기, 의복 제작 등의 노동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실습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눈을 씻고 일어나라.”, “방을 쓸고 깨끗하게 하라.”, “어른께서 식사를 시작하시기 전에는 먼저 먹지 말라.”, “식사를 마친 후 마루를 닦아라.”, “어머니 방에서 아이를 보고 곡식창고에서는 닭을 쫓아라.”, “숨을 고르고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라.” 등 이러한 구체적인 서술은 노동을 추상적인 덕목이 아니라 시간적 질서에 따라 반복되는 신체 행위로 전환시킨다. 동시에 여성의 일상적 행동이 유교적 질서와 결합하여 규율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며, 윤리를 실천하게 되는 내면화 과정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규방가사는 추상적 윤리의 교화를 강조하기보다 노동의 구체적 실천을 시간적·신체적 행위로 재현함으로써, 윤리가 일상 속에서 체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반면 여성생애자료에서는 여성노동이 대체로 결과 중심으로 형상화된

16) 「녀손훈사」, 위의 책 4, 518면. “동방이 발가거든 눈씻고 이러느셔/옷납고 자리것고 방쓸고 소세하라/옷깃슬 바루염우이고 치마끈을 줄라티라/각방의 문안호오디 소리를 나직이 흐라/어룬의 교훈되로 진심하여 익히거라(중략)아춤상이 드러오니 손길잡고 이러서라/어른이 하져히기전의 문져먹지 못흐느니라/자근음식 투경말고 맛는반찬 싱각마라/아희될 양큰거슨 남의게 붓그러음이오/녀즈의 입눙흔거슨 어니곳에 쓰잔말고/진지상 물닌후의 마루걸네 네흐여라/나갈싱각 두지말고 뒤문 안희셔 종일흐라/자모슬흐의 뵈셔안져 신부름인덜 저글소냐/바늘도 췌여주고 실 췌도 쳐져주라/부인방의 아희보고 곡석그릇세 닭쏘차라/잔신부름 하는틈의 녀공인덜 아니빅우라/면화고루고 고치말기 길삼의 시작이오/줍치짓고 보선김기 침선의 시작이라”

17) 5-6세에 女工을 배운다는 경우도 있고(「복선화음녹」, 위의 책 8, 259쪽; 「홍규권장가」, 위의 책 20, 123쪽 등), 14세에 침선 등을 배운다는(「효부가」, 위의 책 20, 441쪽)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다. 혼인 전 여성의 일상에 대해서는 혼인 후의 삶을 대비하고 주로 어머니의 보조자로서 노동을 수행하는 내용이 간략하게 서술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나마 어머니가 아프거나 부재할 시 그 공백을 온전히 메우는 역할을 해야 할 경우에 서술이 다소 자세하다.

몇 해 전부터 떡을 만드는 일을 배웠는데, 하루는 어린 여종이 공에게 만두를 올리면서 “여러 따님들께서 같이 만드셨는데 유독 이 소저께서 만드신 것이 가장 예쁩니다.”라고 하니 문득 그 여종을 꾸짖으며 “네가 어찌 감히 그런 말을 하나?”라고 했다. 이는 다른 사람들과 장단을 비교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이었다. 8세에 여공을 배웠는데 막힘없이 꿰뚫어 알았고, 어머니를 대신하여 편지를 쓰면 어머니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 없었다.

9세에 병이 들었는데 그 때 공께서는 연산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집안 식구들이 마마인가 염려하여 공에게 알려려 하자 극구 말리며 “아버지께 염려를 끼치지 마십시오.”라고 하더니 다음날 병이 나왔다. 그 때 어머니가 숙환으로 오랫동안 앓고 있었기 때문에 집안 살림을 대신해서 맡았는데 여유 있게 잘 하였다. 어머니가 오랜 병으로 좋아하고 성내는 것이 간혹 중도를 잃을 때면 반드시 조용히 화해롭게 풀어서 여종들이 벌 받는 것을 많이 면할 수 있었다.¹⁸⁾

송시열이 김수항의 딸에 대한 생애를 서술한 「孺人金氏墓誌銘」의 서문 중 일부이다. 이 글은 병든 어머니를 대신하여 노동을 수행하며 살림을 꾸린 내용이 강조되어 있는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구체적 과정보다는 공백을 잘 메웠다는 덕성의 표상으로 요약된다. 이는 여성노동이 현실적 실천이 아니라 윤리적 상징 자원으로 작동했음을 의미한다.

의례 수행과 접빈객 노동 역시 여성의 일상 노동 중에서 중요한 비중을

18) 송시열, 「孺人金氏墓誌銘」, 『宋子大全』 187. “自數年前, 已能學粉糰博餈之事, 一日小婢奉進饅頭於公曰: ‘諸少主共爲之, 而獨此小姐所造善好矣.’ 輒呵叱其婢曰: ‘汝何敢爲此言? 蓋嫌其長短於諸嫂也. 八歲, 學習女紅, 灑然通曉, 代母氏酬酢書札, 無不稱意. 九歲, 有疾, 時公奉使燕山. 家人慮其爲痘, 欲因遞報於公, 則亟止之曰: ‘母恐貽親遠慮也.’ 翌日而瘳, 時母氏宿患沈綿, 故代幹家務, 綽然有裕. 母氏喜怒因久疾或失中, 則必從容和解, 故婢使多免罪罰焉.”

차지한다. 특히 조선 후기 사족 가문에서의 상·장·제례는 가문 구성원의 정체성과 위계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실천이었고, 이에 필요한 상복 제작, 제수 준비, 손님 접대 등은 여성의 책임으로 명확히 규정되었다. 규방가사에서는 특히 접빈객 노동의 형상화가 매우 구체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어른께서 오시거든 문밖에 서서 맞이하거라
 온화하고 순한 모습으로 허리를 굽히면서
 공손하고 정중하게 말하기를 요사이 뵈지 못하여
 오래되어 저희집 어른께서 궁금해하셨는데
 다시 오시니 황송하고 감사하다고 하거라
 곁에서 안부를 여쭙어본 후에 자제분들의 안부를 자세히 물어보거라
 담배를 빼서 앞에 놓고 화로의 불을 잘 살피고
 일어나서 밖에 나가 음식을 준비할 때는
 밥을 되게 짓지 말고 국그릇을 뜨겁게 하며
 어찬, 육찬, 채소 반찬 등을 양념 갖추어 장만해라
 손님상은 앞에 들고 주인상은 뒤에 들고
 각각 앞에 놓은 후에 극진하게 권하는 말로
 모처럼 와 계신데 마침 반찬이 없어
 변변치 못한 음식을 드리니 죄송하고 무안하오나
 부족한 죄이오니 미천하다 여기지 마시고
 진지 많이 잡수시고 손님과 주인이 서로 즐겁게 노시다가
 며칠 더 머무신 후에 본택으로 가시기를
 저녁까지 바라오니 부디 평안히 머무시라고 하려무나
 다 마친 상을 들여놓은 후에 밥상을 다시 내어놓고
 손님과 주인께 담배를 담아 두 손으로 올린 후에
 〈효행가〉를 내어놓고 글자 하나하나 배워라
 어른께서 떠나실 때는 사립문 밖까지 따라나가
 공손하게 작별을 고하고 수줍게 여쭙어라
 이후에 제가 저곳에 가서 다시 인사 올리겠다고¹⁹⁾

손님을 마중할 때 태도와 안부를 묻는 방법, 담배 준비, 음식 구성과 반찬 종류, 식사 권유, 배웅 절차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묘사는 접빈이 단순한 예절 수행이 아니라 가문의 명예와 사회적 신뢰를 관리하는 전략적 노동이었음을 드러낸다. 여성생애자료에서도 여성의 접빈객 역할이 강조되지만 형상화되는 방식은 다소 다르다.

손님이 찾아오면 비록 반찬거리가 없어도 눈살을 찌푸리지 않고 “집안에 어른이 있고 또 자녀가 있는데 유독 손님만 없겠습니까?”하면서 손님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 집안은 알 만하다고 했다. 이공 때부터 자식들 2대에 이르기까지 원근에서 유학하며 찾아와 머물렀는데,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때를 가리지 않고 찾아왔다. 유인은 먹을 것을 장만해 대접하고 곁에서 시중을 들었는데 그다지 이를 어려워하지 않았고, 그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자기 부모에게 고하니 다들 고맙게 여겼다.²⁰⁾

연안 김씨(1710~1784)의 사례는 가족의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서도 빈객을 기꺼이 맞이하는 모습을 묘사한다. 남편과 아들의 학맥으로 인한 빈번한 손님 접대가 김씨에게는 큰 노동 부담이었음에도, 이는 결국 빈객들이

19) 「계여가」, 위의 책 1, 526면. “어룬이 오시거던 문밧기 석나서서/회순한 형용으로 허리를 굽히면서/관고하길 맡을하되 요사이 못뵈압기/오래되압기로 제집에 어룬계서 궁거워하시던이오/날헿차 다시오니 황공감사 하오이다/겨테문후 사른후의 슬하안부 자시못고/담백책서 압히눗코 화로불 단송하고/이러나서 밧기나가 음식공기 후을적의/밥을되기 짓지말고 국그릇슬 답기하며/어찬눅찬 친찬등속 약남것 최장만하야/손오상은 압히들고 듀인상은 뒤이들고/압압히 드러눅고 극진하길 권한마리/모초름 와겨시나 적시이 반찬업서/소찬을 드리오니 죄롭고 무안하나/공괴한 저죄오니 미겨한 것 갈지말고/진지만니 잡수시고 듀근분니 노시다가/슈일유련 하신후이 본턱으로 가시기를/적녁시 바리오니 부덕평안 유하소서/숙상그럭 들인후이 밥상을 너여노코/쥬직디이 담비담아 두손으로 올인후이/효헿가 너여노코 귀귀자자 비을지라/어룬이 췌나실췌 삼작박기 췌라나가/공근하길 비별하고 수연이 엇자오되/일후이 저기가서 회사를 후오리라”

20) 황윤석, 「孺人延安金氏行狀」, 『頤齋遺藁』20. “賓客之至, 雖無饌物, 亦不嘖蹙曰: “家有長者, 重有子女, 獨不有賓客乎? 賓客不至, 其家可知. 自李公至諸子兩世, 遠近游學來留者, 亡論冠童, 不止時日, 而供餽梳櫛, 略不持難, 其人歸以告其父母則舉懷感.”

돌아가 부모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전함으로써 가문의 위상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이처럼 빈객의 방문 여부가 사족 사회에서 가문의 위상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었기 때문에 접빈객은 여성에게 중대한 노동 영역으로 강조되었던 것이다. 이 점에서 여성생애자료는 접빈객 노동의 당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실제 노동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하다. 여성생애자료에서는 접빈객 행위를 미덕으로 추상화한 데 반해, 규방가사는 그것을 체계적 훈련과 반복적 실천의 영역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여성노동의 또 다른 유형으로는 가산을 유지·증식하기 위한 재물 관리 노동이 있다. 규방가사에서는 이 노동 역시 세부적인 방식으로 서술되며 가난의 책임이 여성, 특히 며느리에게 있다는 인식이 강하게 드러난다.

분한 마음 깨끗이 없애고 治産에 힘쓸 것이니
 이 부자, 김 부자가 본래부터 부자였던가
 밤낮으로 부지런히 노력하면 나인들 잘살게 되지 않겠는가
 오색의 당사실과 가는 실을 올올이 뽑아내어
 유황색의 긴 베틀에 한 필, 두 필 자아내며
 아들의 옷감인 割藍紬와 朝服을 만드는 명주실, 사위에겐 응복을 짜고
 푸른 저고리와 붉은 치마를 짜서 치장하고 푸른 삼베로 만든 옷과 소박한 연한
 색깔의 옷,
 어린아이의 색동옷과 팔십 노인의 여름옷을 짓네.
 원앙을 수놓은 베개와 봉황을 새긴 비단에 수를 놓으니
 낮에는 두 필이요 밤에는 다섯 가지 일을 하네
 뽕을 따서 누에를 치고 밭을 얻어 농사를 지으며
 때를 맞춰 힘쓰니 집안 살림이 넉넉해지는구나
 고운 의복을 던져두고 몽당치마를 둘러 입고
 채소밭을 가꿀 때는 가지 밑을 굽게 키우네
 장에 가서 팔아 오고 개울을 치고 닭을 키워
 장에 가서 팔아 오고 저녁에는 등불을 켜고
 새벽에는 밥을 일찍 지어 알뜰하게 해 먹고
 푼푼이 모아내니 그것이 兩이 되어貫이 되고
 貫이 되어 百貫이 되더라²¹⁾

이같은 「복선화음가」류의 작품에는 혼례복과 상복 제작·침구 마련·양잠업을 통한 수익 창출, 농토 확보, 채전과 가축 사육 등 구체적인 생산 노동의 실천이 상세히 묘사된다. 이는 실제 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노동 지침으로 기능하며 대체로 노동의 결과만을 강조하는 여성생애자료의 서술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즉, 규방가사에서 노동은 단순한 근면의 미덕이 아니라 가문의 경제적 재생산을 위한 실천적 지식 체계로 의미화된다. 이는 여성생애자료의 ‘여성노동의 윤리화’와 구별되는 ‘여성노동의 실천화’라 할 수 있다.

요컨대 규방가사에 나타난 여성노동은 단순한 윤리의 전파가 아니라 구체적 행위를 서술함으로써 윤리가 일상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여성노동은 여성의 몸을 규율하는 실천이자 가문의 생계를 유지하는 현실적 수단으로 동시에 작동하였다. 그러나 노동의 구체성이 세밀하게 드러날수록 여성들은 그 과정에서 겪는 피로와 부담을 더욱 생생히 체감하게 되었으며, 이는 곧 규방가사 내부에서 노동의 고단함을 토로하거나 일상의 억압을 잠시 벗어나려는 욕망으로 표출되었다. 이러한 정서는 다음 절에서 살필 여성노동의 ‘고통의 언어’와 ‘놀이의 권유’로 이어지며, 유교적 노동 담론의 내면화가 단순한 수용이 아닌 갈등과 조율의 과정이었음을 보여준다.

21) 「복선화음곡」, 위의 책 8, 260면. “분한 마음 씌쳐먹고 치순범절 힘슬이라/니부즈 김부즈난 계가근본 부즈런가/쥬야□ 힘셔하면 닐을아니 건딜손가/오식당스 가는 실을 올올이 주아니아/유황괴 긴베틀의 필필 짜아니아/할남쥬셔 조복초□ 명슈스이 용복초며/녹이홍상 처여치장 청삼복슨 소연의복/어린아히 식웃시며 팔십노인 하웃시며/원양침이 슈노기와 봉황단의 문노기을/나지면 두필이요 밤이면 닷섯가지/뽕을싸셔 누이치고 전답어더 농스하괴/씩을차자 힘셔하니 가업니 유족하다/고은의복 더져두고 몽당치마 들너입고/취전을 갖골적이 가지위를 굴씩기라/장이가셔 파라오며 기을치고 닥을쳐셔/장이가셔 파라오고 전역에 등불켜고/시벽 밥을 일즉지여 알알이 햏여먹고/푼푼이 모아니니 양이디여 관니디고/관니디여 퍽니된다”

2) 고통 토로와 놀이 권유

전근대 시기 여성은 의식주 중심의 생계노동을 중심으로 가족의 생계와 의례 수행, 사회적 관계에 필요한 부양·의례·접빈객노동, 재물과 노비의 관리노동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을 수행해야 했다. 이러한 노동의 종류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여성의 일상은 과중한 노동에 매몰되어 있었으며, 삶 전체가 노동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여성노동의 당위성은 『소학』과 같은 여성 교양서를 통해 반복적으로 강조되었으며, 남성 작자의 여성생애 서술에서도 여성은 노동을 수행하는 존재로 묘사되며 그것이 덕성과 미덕의 실현으로 형상화되었다. 규방가사 역시 이러한 윤리적 노동담론을 여성 독자에게 내면화시키는 매체로 기능하였고, 여성에 의해 수용되고 실천되며 재생산되는 과정을 통해 해당 담론은 사회적으로 더욱 견고해졌다. 그러나 규방가사 내부에서는 여성노동이 항상 기꺼이 수용되고 무비판적으로 수행된 것만은 아니었다는 정황 또한 포착된다.

(1) 草野 閑土의 부인이 되어 가난마저 심하구나

아침저녁으로 끼니를 챙기고 버선을 깎는 일이 괴롭기 그지없네
 규방에 매여 있어 온종일 기다리기만 하다 겨우 보니
흑산도 유배 생활이 이보다 더하겠는가²²⁾

(2) 동지선달 긴긴밤에 밤새도록 잠 못 자고

3·4월의 긴긴 해에는 해가 지도록 일을 하니
 일도 일도 이리도 많구나 결혼을 위한 바느질 일도 참으로 많구나
 한다고 했지만 마음 편히 쉬는 것이 어렵더라
 밤인 줄도 모르고 버선을 깎고 품삯 받을 옷을 만들 때에
 이렇게 하면 맞을까, 저렇게 하면 실수가 될까 걱정하네
 남의 성품도 모르는 내가 이토록 많은 바느질을

22) 「녀족탄」, 위의 책 4, 524면. “초야한스 부녀되어 가난조차 심홀시고/조석반감 보선깎기 괴롭기 그지없다/규똥의 킨이어서 영일만 겨보보이/흑산도 유리안치 이에 서 더홀손가”

겨우겨우 끝마치고 옷장 문을 열어보니
 할 일이 또 새로 있네 명주와 비단 같은 고운 옷감을
 누비는 일은 언제 하며 백토와 황토로 염색한 옷감들을
 다듬이질하는 일은 누가 할 것인가
 봄·가을 옷을 누비질할 때에는
 열 손가락이 모두 헐고 여름·겨울 옷을 다듬이질할 때는
 두 팔이 쇠약해지는구나 귀찮고도 괴롭구나²³⁾

제시된 두 작품은 여성 노동의 과중함과 그로 인한 피로감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1)에서는 ‘草野 閑士의 부인’과 같은 표현을 통해 자신의 초라한 처지를 드러내고, 끝없는 가사노동을 “괴롭기 그지없다”고 직접적으로 토로한다. 이는 여성노동이 당위적 덕목으로 내면화되는 과정 속에서 그 수행이 낳은 신체적 고통과 피로의 감각은 완전히 억압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규방가사는 이러한 감각적 체험을 서사적 언어로 드러냄으로써 윤리 담론이 현실의 경험과 충돌하는 지점을 가시화한다. 나아가 자신의 삶을 “흑산도 유배 생활”과 동일시하면서 노동의 피로와 여성의 고립된 처지를 극단적으로 형상화하기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에서도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열 손가락이 모두 헐고”, “두 팔이 쇠약해지는” 등의 구체적인 묘사는 노동의 물리적 고통을 여과 없이 전달한다. 이는 여성들이 노동을 단순히 의무로 수용하지 않고 자신의 육체와 감정을 훼손하는 고통스러운 현실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작품들은 유교적 여성노동 담론이 여성의 현실과 충돌하면서 빚어내는 감정적 갈등과 불만을 솔직하게 기록하는 공간으로 기능했다. 규방가사는 유교적 담론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대신, 현실의 고통을 인식하고 심리적 해

23) 「석별가」, 위의 책 10, 248면. “동지서달 긴긴밤에 밤새도록 잠못자고/삼사월 긴긴 해에 해지도로 일올한이/일도일도 그리만타 신행견일 하도만타/하노라고 하여내도 마음쉬기 여렵드라/밤모르고 보선집고 품모르고 큰옷할재/이리하면 마자질가 저리하면 실수될가/남에성품 내모르고 허다한 바느질을/근근이고 그진하고 농문을 열고본이/할 일도 새로잇내 명주비단 고운김을/누비질을 은재하며 백토황토 장찬감을/푸애다듬 누가할고 춘추복을 누비할재/열손가락 다파이고 동하복을 짜듬할재/두팔이 회절인다 귀찮고도 괴러워라”

소를 추구하는 능동적인 내면화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지점은 이러한 노동 중심적 삶에 대한 고통의 토로와 함께 유년기의 자유로운 시간을 긍정적으로 회상하고 혼인 이전의 놀이 시간을 권유하는 서술이 병존한다는 사실이다.

- 열대여섯 즈음 되는 처녀들아, 젊은 시절을 잘 누리거라
어릴 적에 함께 놀지 못하면 어른이 된 후에 후회하게 될 것이다.²⁴⁾
- 온갖 꽃과 향기로운 풀이 가득한 화원에서 봄 경치를 구경하고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이 비추는 옥 같은 규방에서 달빛도 구경했네
새롭고 별미인 다과상도 입맛이 없어 다 먹지 못하고
원앙을 수놓은 비단 이불과 베개가 있는 붉은 규방에서 책자도 구경하며
명절과 삼복더위 같은 좋은 때에는 쌍륙 놀이도 해보고
눈처럼 희고 옥처럼 고운 몸종들과 투호도 던져보면서
즐겁게 지냈더니 열다섯 살 나이가 차서
고르고 다시 골라 멀고 먼 江湖로 出嫁하는구나²⁵⁾

대체로 15~16세를 전후하여 혼인하는 여성들에게 있어 결혼 전 시기는 일정 수준의 자유가 허용되는 유일한 시간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1)에서 “젊은 시절을 잘 누리거라”라고 직접적으로 권유하기도 하고, “어릴 적에 놀지 못하면 어른이 된 후 후회하게 된다”는 표현을 통해 결혼 후에는 이러한 자유가 제한될 것임을 암시하기도 한다. (2)에서는 혼인 전 삶의 풍요와 안락함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出嫁’한다는 전환을 통해

24) 「석별가」, 위의 책 10, 248면. “이팔삼오 처녀들아 녀이부대 잘노아라/아해씩 못아 놀면 성인된후 녀한이다”

25) 「紅閨勸獎歌」, 위의 책 20, 123면. “백화방초 화원상에 춘경도 구경하고/청풍명월 옥규중에 달빛도 구경하고/신신별미 다담상도 입맛없어 못다먹고/원앙금침 홍규중에 책자도 구경하고/세시복랍 좋은때에 쌍륙도 던져보고/설앙옥비 대비들과 투호도 던져보고/즐거이 지내더니 15세라 연광차니/고르고 다시골라 강호에 출가하니”

곧 이러한 자유와 유희의 상실을 의미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혼인 전 시기를 놀이와 유희의 시기, 혼인 후를 노동과 의무의 시기로 명확히 분리하며 결혼 전 시기가 여성의 생애에서 자유가 허용되는 유일한 시간으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규방가사가 여성의 삶에 대한 현실적 인식을 담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여성생애자료에서는 여성노동의 구체적 과정보다 노동이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당위가 강조된다. 여성은 노동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자신의 재산·시간·신체를 희생하는 존재로 그려지며, 이러한 자기희생은 윤리적 미덕으로 이상화된다.(전지원, 2022:104-108) 예컨대 윤광소의 모친 양성 이씨는 남편의 과거 공부를 돕기 위해 비녀와 귀고리를 팔아 살림을 꾸렸고²⁶⁾, 이종휘의 아내 해주 최씨는 친족의 상례를 위해 사유재산을 기꺼이 내어주었다²⁷⁾. 이처럼 여성에게 허용된 한정된 사유재산조차 가문과 남편을 위해 환원되는 것이 미덕으로 제시되었다. 나아가 일부 기록에서는 수면과 식사 등 기본적 욕구를 억제하거나, 병든 가족을 위해 斷指·割股·斷髮 등의 행위를 수행하는 사례가 등장한다.

26) 윤광소(尹光紹, ? - ?)는 尹仁教의 손자이자 尹東輅(1684 - 1768)와 양성 이씨(1686 - 1752)의 아들로, 후일 할아버지의 형 尹智教의 아들 尹東奎의 양자로 입적되었다. 윤광소가 작성한 묘지문은 모친 이씨의 사망 4년 후에 작성된 것으로, 이씨가 남편 윤동로의 과거 준비를 위해 한양으로 이주할 때 자신의 패물(비녀와 귀걸이)을 처분하여 집을 마련하고 살림을 이끌었다는 사실을 전한다. 이는 조선 후기 여성에게 유일하게 인정된 사유재산인 혼수품을 남편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위해 희생하는 행위가 윤리적 미덕으로 이상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윤광소, 『生妣貞夫人李氏墓誌』, 『素谷先生遺稿』12)

27) 이종휘(李種徽, 1742 - 1823)의 아내 해주 최씨(? - 1776)는 16세에 당시 14세였던 이종휘와 혼인하였다. 이종휘가 작성한 제문에는 남편이 열아홉 살이던 해, 인척의 상례를 돕기 위해 부인이 간직해 둔 사유재산數緡之藏을 주저 없이 내어놓았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여성에게 제한적으로 인정된 사유재산마저 가문의 의례비용으로 희생하는 행위를 미덕으로 형상화한 사례로, 여성의 경제적 자원이 사적 소유가 아닌 '가족 공동체의 의무 수행'에 귀속되는 유교적 여성노동 담론의 단면을 보여준다.(이종휘, 『祭亡室文』, 『修山集』9)

유인이 전염병에 걸려 위태롭다가 회복되었다. 뒤이어 남편도 병이 났고, 병난 지 10일 만에 위독해지자 유인은 울면서 “병이 이미 어찌할 수 없는 지경이니 내 차마 남편의 병 때문에 남편 곁을 떠나 나 혼자 몸만 온전하게 할 수 없다. 또 내가 들은 옛날에는 자기 몸을 대신하여 죽은 사람도 있다고 하였다. 밝고 밝은 하늘이 어찌 바르지 않을까보냐?” 라고 하였다. 어두운 밤에 몸을 깨끗이 하고 뒤뜰로 나아가 복극성을 향하여 절하고 빌었다. 자기 자신으로써 남편의 운명을 대신케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 다음날 병은 더 더욱 심해졌고 유인은 목숨까지 바쳤다. 그때 남편은 아침저녁을 이어갈 수 없을 지경이었는데도 유인이 죽고 나자마자 홀연히 약을 쓰지 않고도 조금 나아져갔고 마침내 좋은 의원을 얻었다. 모두들 말하기를 “반드시 신이 도와주신 것이다.”라고 했고 듣는 사람마다 기이하게 여기지 않은 이들이 없었다. …… 예부터 부인들의 순절은 거의 애휼함을 견디지 못하여 따라 죽었다. 죽음은 진실로 매서운 것이니 또한 남편의 죽음에 보탬이 전혀 없다. 지금 유인은 남편을 위하다가 먼저 죽었고 그 죽음이 능히 하늘의 마음을 움직여 그 생명을 연장하게 하였다. 그 의리의 지극히 괴롭고 어려운 옛날에도 있지 않았다.²⁸⁾

이 같은 완산 최씨의 사례는 자기희생의 극단을 보여준다. 그녀는 전염병에서 회복된 직후 병든 남편을 간병하던 중, 스스로의 생명을 대신 바쳐 남편의 병이 낫기를 기원하며 끝내 목숨을 잃었다. 작자는 이를 “하늘이 감동하여 남편의 생명을 연장시켰다.”고 서술하며, 남편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행위를 의리의 지극한 완성으로 찬미하였다. 이는 남편의 죽음을 따라 자결하는 열녀 서사를 넘어, 남편의 생존을 위해 기꺼이 죽음을 감수하는 희생이 보다 고결한 덕목으로 이상화된 사례라 할 수 있다. 결국 여성생애자료 속 여성의 자기희생은 노동과 부양의 연속선상에서 극

28) 이영익, 「表姪女李氏婦哀辭」, 『信齋集』2. “孺人遘厲, 危而蕪. 夫子繼病, 病十日革, 孺人泣曰: ‘疾已不可爲, 吾不忍遷已病於君子而身獨全. 且吾聞古有以身代死者, 昭昭之天, 豈無格乎?’ 昏夜澡潔, 出後庭, 拜祈北辰, 盖祈以己之死贖夫命. 其翌日疾益甚, 孺人乃致命, 時夫子將不能听夕, 纔孺人死, 忽不藥而少間, 竟獲安醫. 皆謂必有神畀, 聞者莫不異之. …… 自古婦人殉節, 率不堪其毀而從死. 死固烈, 亦無益夫子之死. 今孺人爲夫先死, 死有能動天心, 而挽其生命. 其義之至苦至難, 古未有也.”

대화된 형태로, 여성의 생명까지도 가족 유지를 위한 자원으로 편입하는 유교적 여성노동 담론의 한 극점을 드러낸다. 이러한 서술은 여성노동을 현실적 행위가 아니라 가부장제 윤리를 입증하는 상징적 희생의 서사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즉, 여성생애자료의 세계에서 여성노동은 그 수행의 과정보다도 자기희생을 통해 완결되는 도덕적 이상으로 형상화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규방가사와 여성생애자료는 모두 전근대 여성의 삶을 노동 중심적 질서 속에서 형상화했으나 그 구체적 양상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규방가사는 여성노동의 과중함과 피로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이를 단순한 윤리적 미덕이 아니라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으로 토로하였다. 나아가 혼인 이전의 자유로운 시간을 긍정적으로 회상하거나 놀이와 유희를 권유하는 서술을 병치함으로써, 노동 중심적 삶의 억압성과 갈등을 인식하고 해소하려는 정서를 드러냈다. 반면 여성생애자료는 노동 수행의 고통을 드러내기보다는 여성의 사유재산, 시간, 신체적 수고, 심지어 생명까지 희생하는 행위를 미덕으로 이상화하며, 여성노동을 남성 및 시가를 위한 당위적 의무로 정당화하였다. 따라서 규방가사가 여성노동을 단순히 윤리적 덕목으로만 내면화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 고통과 놀이의 욕망을 함께 드러낸 기록이었다면, 여성생애자료는 여성의 무한한 희생을 이상화하는 방식으로 노동을 규범화한 자료였다고 할 수 있다.

4. 맺음말

본 연구는 조선 후기 규방가사를 중심으로 전근대 사회의 여성노동 담론이 형성·확산되는 과정을 규명하고, 그 내면화의 복합적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여성노동을 윤리적 의무로 이상화한 여성생애자료와 노동의 현실적 체험과 감정이 언어화된 규방가사를 교차 검토함으로써 남

성 중심의 규범 담론과 여성 주체의 실천적 언어가 교섭하는 지점을 포착하고자 했다.

그 결과 규방가사에 나타난 여성노동은 단순히 유교 윤리를 전파하거나 근면의 미덕을 강조하는 윤리적 교화의 언어가 아니라 일상적 행위의 구체적 실천을 통해 윤리가 생활화되는 과정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사 내부의 구체적인 서술은 노동을 추상적 윤리로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재현함으로써 윤리가 생활 속 실천으로 정착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동시에 규방가사는 노동의 고단함과 신체적 피로, 그리고 놀이와 유희에 대한 욕망을 병치함으로써 윤리적 담론의 내면화가 결코 일방적인 수용의 과정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여성 화자들은 노동을 덕목으로 인식하면서도 그 수행 과정에서 겪는 피로와 불만을 토로하고 잃어버린 자유를 회상하거나 잠시의 유희를 갈망함으로써 내면화 과정 속에 내재한 감정적 균열과 조율의 실천적 역동성을 언어화하였다. 따라서 규방가사는 윤리의 수용과 감정의 저항이 공존하는 복합적 정서 구조를 드러내는 장르로 이해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규방가사와 여성생애자료를 아우르는 여성노동 담론의 복합성을 새롭게 조명하였다. 첫째, 규방가사 전반을 포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계녀가류·자탄가류·화전가류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서사 관습과 정서 구조의 패턴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노동이 단순한 윤리의 수용이 아니라, 일상적 실천과 감정의 언어로 재구성된 과정을 규명하였다. 둘째, 여성생애자료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남성 지식인이 구성한 이상화된 여성노동 담론과 여성 주체가 생활 속에서 이를 조율한 실천 언어의 차이를 드러내었다. 이를 통해 유교적 질서의 내면화와 변용이 상호작용하는 구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결국 규방가사는 유교적 가부장제가 형성한 윤리 담론을 단순히 반영하는 텍스트가 아니라 여성의 일상·정서·신체적 경험을 통해 그 담론을

현실적 실천으로 재구성한 생활 윤리의 장이었다. 여성들은 노동의 규범을 내면화하는 동시에 그 수행의 고통과 욕망을 언어화함으로써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조율하고 의미화하는 주체로 자리하였다. 본 연구는 규방가사를 윤리의 실천과 감정의 언어가 교차하는 복합 담론으로 조명함으로써 조선 후기 여성노동의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분석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참고문헌 |

- 송시열, 「孺人金氏墓誌銘」, 『宋子大全』 187.
- 윤광소, 「生妣貞夫人李氏墓誌」, 『素谷先生遺稿』 12.
- 이영익, 「表姪女李氏婦哀辭」, 『信齋集』 2.
- 이종휘, 「祭亡室文」, 『修山集』 9.
- 황윤석, 「孺人延安金氏行狀」, 『頤齋遺藁』 20.
- 임기중, 2005. 『한국가사문학주해연구』 1-20. 서울: 아세아문화사.
- 김석희, 2005. “우산본 복선화음가의 가문서사 양상과 그 여성사적 함의.” 『고전문학과 교육』 10: 169-194.
- 박경주, 2012. “규방가사가 지닌 일상성의 양상과 의미 탐구 - 여성들의 노동과 놀이에 주목하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5: 151-182.
- 백순철, 2010. “규방가사에 나타난 가사노동의 의미와 ‘일상성’의 문제.” 『한국시가문학화연구』 36: 173-206.
- 성무경, 2003. “『복선화음가』류 가사의 이본현황과 텍스트 소통.” 『민족문학사연구』 22: 81-110.
- 손영화, 2015. “규방가사와 부요에 나타난 조선조 여성의 현실대응양상 고찰- 부부관계와 가사노동을 중심으로.” 『한국시가문학화연구』 36: 173-206.
- 이민규, 2017. “규방가사에 나타난 분노의 성격과 남성 인식.” 『이화어문논집』 45: 5-30.
- 이상원, 2018. “순천김씨의 〈노부탄〉과 김약련의 〈답부사〉.” 『한국시가문학화연구』 42: 185-212.
- 전지원, 2022. “조선 후기 사족 여성 생애자료에 나타난 여성노동 담론.”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기선, 2022. “자료적 특성으로 본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주제구현 방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규수, 2008. “〈석별가〉에 나타난 처녀들의 이중 욕망과 ‘철들다’의 문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6: 319-350.
- 하윤섭, 2013.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모순과 상상적 봉합.” 『한민족어문학』 63: 215-249.

Abstract

The Internalization Process of Women's Labor
Discourse in *Gyubang gasa*

Jeon, ji-won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representation of women's labor in *Gyubang gasa* (inner-chamber verse) of the late Joseon period and analyzes the process through which the discourse of women's labor was internalized and disseminated in premodern Korean society. By comparing *Gyubang gasa* with biographical writings about women—such as epitaphs, memorials, and funerary texts written by male scholars—this study explores the intersection between the male-constructed normative discourse of Confucian patriarchy and the practical language through which women negotiated and reinterpreted that discourse in everyday life. The analysis demonstrates that *Gyubang gasa* does not merely function as a medium for moral instruction but represents the process by which ethical norms were embodied through concrete acts of labor. Through the detailed depiction of daily tasks—ranging from domestic chores and household management to ritual and guest reception—these texts reveal how Confucian ethics were assimilated into women's bodily and temporal routines. At the same time, the coexistence of depictions of fatigue, physical strain, and longing for leisure or play illustrates that such internalization was not a passive acceptance but a dynamic negotiation involving emotional tension and practical adjustment. In contrast, male-authored biographical writings idealized women's labor as moral virtue and self-sacrifice, thereby reaffirming the patriarchal order. By analyzing *Gyubang gasa* as a site where ethical ideals and lived

experience intersect, this study highlights the complexity of women's labor discourse in late Joseon Korea. It argues that women appropriated the Confucian ethics of labor as both a moral obligation and a lived practice, articulating their sense of agency within the constraints of patriarchal society. This approach contributes to a more integrated understanding of *Gyubang gasa* and the cultural history of women's labor in premodern Korea.

Key words: *Gyubang gasa*, women's labor, internalization, women's biography, Confucian ethics, everyday ethics

- 투 고 일 : 2025년 8월 31일
- 최초심사일 : 2025년 10월 1일
- 게재확정일 : 2025년 10월 27일